

**이 자료는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**

배포일	2018년 1월 31일(수) (총 9쪽)	담당부서	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
		담당자	최난주 팀장 (043-880-5421) 손재석 조사관 (043-880-5424)

## 스키장 이용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요

- 스키는 무릎 부위,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 부상에 주의 -

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스키장 방문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키장 이용 중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\*)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사례 분석, 스키장 이용자 총 500명의 보호장구 착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.

\*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,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·평가하는 시스템(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)

### □ 스키·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많고, 주로 ‘골절’ 발생

최근 3시즌\*(‘14~’17시즌)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492건\*\*으로 나타났다.

\* 한 시즌을 스키장 개·폐장 시기에 맞춰 전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봄.

\*\* (‘14~’15시즌) 145건 → (‘15~’16시즌) 107건 → (‘16~’17시즌) 240건

사고유형은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87.6% (431건)로 주를 이뤘다. 이어 펜스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가 7.3%(36건)를 차지했다.

상해부위는 ‘둔부·다리 및 발’ 28.2%(139건), ‘팔 및 손’ 27.7%(136건), ‘머리 및 얼굴’ 22.6%(111건) 등으로 다양했으며, 이중에서도 스키는 ‘무릎’ 부위 (36건), 스노보드는 ‘손목’ 부위(17건) 부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상해증상은 다리·팔 등의 ‘골절’이 37.8%(186건)로 가장 많았으며, ‘타박상’ 25.4%(125건), ‘열상’ 10.6%(52건)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.

## □ 스키장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 착용하지 않아

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스노보더가 후방에서 직활강해온 스키어와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로 안전모 착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. 특히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.

※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)는 스키 안전모의 사용으로 머리 부상의 44%를 방지할 수 있고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경우 머리 부상의 53%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음.

이에 금년 1월 중 강원·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(스키어 284명, 스노보더 216명)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, 전체 이용자의 60.4%(302명)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39.6%(198명)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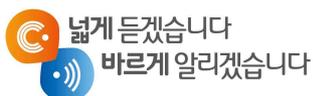
종목별로는 스노보더의 안전모 착용률(52.8%)이 스키어의 착용률(66.2%)보다 13.4%포인트 낮았다.

한편, 5개 스키장 모두 유료(3,000원~10,000원)로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었으며, 어린이나 장비대여자에게는 무료로 안전모를 대여해주는 곳도 일부 있어 미처 안전모를 준비하지 않은 이용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.

## □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안전모, 고글, 보호대 등 보호장구 착용해야

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건의하고, 스키장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안전모 무상 대여 캠페인 확산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.

아울러 스키장 이용자에게 ▲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것 ▲반드시 안전모, 고글,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▲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▲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말 것 ▲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신속히 가장자리로 이동할 것 등을 당부했다.



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 
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[www.kca.go.kr](http://www.kca.go.kr)



## < 붙임 >

### 1 스키장 안전사고 분석

#### □ (발생시기) 1~2월 성수기 스키장 안전사고 다발

- 2014년 겨울부터 최근 3시즌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(CISS)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492건으로, '16~'17시즌의 경우 전 시즌보다 2배 이상 증가함.
- 안전사고 발생시기는 강설량이 많고 학생들의 방학 기간인 1월이 220건 (44.7%)으로 가장 많았고 2월 196건(39.8%), 12월 76건(15.5%)으로 나타남.

#### [ 시즌별 현황 ]

(단위 : 건, %)

구분	'14~'15시즌	'15~'16시즌	'16~'17시즌	합계 (비율)
12월	17	24	35	76 (15.5)
1월	78	50	92	220 (44.7)
2월	50	33	113	196 (39.8)
합계	145	107	240	492 (100.0)
증감률	-	△26.2	124.3	-

#### □ (사고유형) 대부분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

- 스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대부분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431건(87.6%)으로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했고, 리프트 하차 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거나 편의시설 내에서 넘어진 사례 등이 일부 있었음.
- 이용자간 충돌 사례 4건을 포함하여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, 곤돌라 등에 부딪히는 유형이 36건(7.3%)이었고, 스키 날(엣지)에 베이는 등 장비에 의한 손상 11건(2.3%) 등으로 나타남.
- 슬로프를 벗어나 추락하거나, 리프트에서 추락한 사례는 6건(1.2%)이 있었음.

#### [ 사고유형별 현황 ]

(단위 : 건, %)

구분	건수	비율
미끄러짐·넘어짐	431	87.6
사람·시설에 부딪힘	36	7.3
장비에 의한 손상 (예리함·마감처리 불량 등)	11	2.3
슬로프·리프트 추락	6	1.2
기타 물리적 충격	4	0.8
눌림·끼임	3	0.6
피부 접촉에 의한 위험	1	0.2
합계	492	100.0

□ (상해부위) 스키는 무릎 부상, 스노보드는 손목 부상이 많아

- 스키장에서 다친 부위는 '둔부·다리 및 발'이 139건(28.2%)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'팔 및 손' 136건(27.7%), '머리 및 얼굴' 111건(22.6%), '목 및 어깨' 63건(12.8%) 등의 순이었음.
- 스키의 경우 '둔부·다리 및 발'이 8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36건(42.9%)은 '무릎' 손상이었음.
- 스노보드는 '팔 및 손'이 59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'손목' 손상(17건, 28.8%)이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남.
-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'머리 및 얼굴' 손상도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슬로프에 부딪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충격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필요함.

○ 『Skiing Helmets : An Evaluation of Potential to Reduce Head Injury』,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(CPSC), 1991. 1.  
 - 안전모의 사용으로 머리 부상의 44%를 방지할 수 있고, 특히 1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머리 부상의 53%를 방지할 수 있음.

[ 상해부위별 현황 ]

(단위 : 건, %)

구분		스키	스노보드	기타	합계 (비율)
둔부·다리 및 발	무릎	36	7	10	53 (10.8)
	다리(무릎 아래)	27	4	6	37 (7.5)
	다리(무릎 위)	11	2	2	15 (3.0)
	발목	7	8	5	20 (4.1)
	둔부 및 기타	3	9	2	14 (2.8)
	소계	84	30	25	139 (28.2)
팔 및 손	손목	22	17	4	43 (8.7)
	팔꿈치	9	14	3	26 (5.3)
	팔(아랫부분)	12	14	4	30 (6.1)
	팔(윗부분)	7	11	-	18 (3.7)
	손·손가락	10	3	6	19 (3.9)
	소계	60	59	17	136 (27.7)
머리 및 얼굴		51	33	27	111 (22.6)
목 및 어깨		23	34	6	63 (12.8)
몸통		21	16	3	40 (8.1)
전신 손상		-	-	2	2 (0.4)
신체 내부		-	1	-	1 (0.2)
합계		239	173	80	492 (100.0)

## □ (상해증상) 절반 이상이 골절 또는 타박상

- 스키장 내 안전사고로 다리 등 신체부위가 ‘골절’된 경우가 186건(37.8%)으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타박상’ 125건(25.4%), ‘열상(찢어짐)’ 52건(10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- 신체에 골절을 입은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며,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입은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 부위에 인대파열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함.
- ‘뇌진탕’을 입은 경우도 32건(6.5%)으로 나타났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.

### [ 상해증상별 현황 ]

(단위 : 건, %)

구분	건수	비율
골절	186	37.8
타박상	125	25.4
열상(찢어짐)	52	10.6
염좌(뺨)	47	9.5
뇌진탕	32	6.5
탈구	18	3.7
찰과상	14	2.8
기타*	18	3.7
<b>합계</b>	<b>492</b>	<b>100.0</b>



\* 절상, 두통, 천공 및 관통상 등

## □ 주요 안전사고 사례

### ○ 스키

2017년 1월 A씨(남성, 만 25세)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흉부가 골절됨.

2017년 1월 B씨(남성, 만 26세)는 스키날에 베여 다리에 열상을 입음.

### ○ 스노보드

2017년 2월 C씨(남성, 만 13세)는 스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손목이 골절됨.

2017년 2월 D씨(남성, 만 19세)는 오후 8시경 스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뇌진탕을 입음.

○ 시설물

---

2017년 2월 E씨(남아, 만 8세)는 스키장 리프트에서 내리다가 넘어져 팔이 골절됨.

---

2016년 1월 F씨(남성, 만 17세)는 스키장에서 미끄러지며 펜스에 부딪혀 코에 찰과상을 입음.

---

2017년 1월 G씨(남성, 만 49세)는 스키장에서 그물망에 걸리며 넘어져 허리에 염좌를 입음.

---

## &lt; 조사 개요 &gt;

- (조사 일자) 2018. 1. 9.(화) ~ 1. 11.(목)
- (조사 대상) 강원도 및 경기도 소재 스키장 5개소, 스키장 이용자 500명(스키장 별 100명)
- (조사 내용)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실태, 스키장의 안전모 대여 실태

## □ (안전모 착용 현황)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 미착용

- 조사 대상 스키장 이용자 총 500명에 대해 안전모 착용여부를 살펴본 바, 302명(60.4%)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198명(39.6%)은 안전모 대신 비니 등의 보온용 또는 패션용 모자를 착용하거나 미착용 상태로 스키장을 이용하고 있었음.
- 종목별로는 스노보더의 착용률(52.8%)이 스키어의 착용률(66.2%)보다 13.4% 포인트 낮았음.

## [ 안전모 착용 현황 ]

(단위 : 명, %)

구분	착용	미착용	합계
스키	188 (66.2)	96 (33.8)	284 (100.0)
스노보드	114 (52.8)	102 (47.2)	216 (100.0)
합계	302 (60.4)	198 (39.6)	500 (100.0)

## □ (안전모 대여 현황) 스키장 5곳 중 3곳은 어린이에게 무상 대여

- 스키장 5개소 모두 안전모를 대여하고 있었는데, 대여 요금은 3,000원부터 10,000원까지 스키장별로 차이가 있었음. 모든 스키장에서 단체(스키학교 등록자 포함) 이용자에게는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었음.
- 또한 스키장 3개소에서는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이하 또는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무상으로 안전모를 대여해 주었고, 한 스키장에서는 장비 대여자에 한해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음.

### [ 안전모 대여 현황 ]

구분	대여 여부 (유·무료 모두 포함)	보유 수량*	대여 요금	무상 대여 대상
스키장 1	○	3,000개	3,000원	단체, 초등학생 이하
스키장 2	○	2,500개	4,000원	단체, 초등학생 이하
스키장 3	○	700개	5,000원	단체, 장비 대여자
스키장 4	○	2,195개	7,000원~ 10,000원	단체
스키장 5	○	4,000개	3,000원	단체, 만 12세 이하 어린이

\* 스키장의 각 대여소, 스키스쿨 보관 수량 및 보관창고에 보유한 수량 총 합계

### [ 안전모 대여 안내 및 대여소 현황 ]

어린이 무료 대여 안내 현수막	안전모 대여소
	

#### ※ 스키 안전모 착용 의무화 관련 해외 사례

- 이탈리아
  - 14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스키 안전모 착용 의무화 : 위반시 벌금 70~150 유로
- 오스트리아
  - 대부분 주에서 1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스키 안전모 착용 의무화

### □ 스키장 안전수칙

-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습니다.
- 슬로프 이용 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.
-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, 수시로 휴식을 취합니다.
-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,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.
-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.

### □ 리프트 이용수칙

- 리프트 이용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, 승차시 신속히 탑승지점으로 이동합니다.
- 리프트의 의자 깊숙이 앉고 안전손잡이를 내립니다.
- 탑승 중 리프트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- 하차지점이 가까워지면 안전손잡이를 올리고 하차지점에서 신속히 일어나서 앞으로 이동합니다.

### □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

-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발생을 알리며,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.
-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,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.
-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,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.